

한솔테크닉스, 월테크놀러지 품고 반도체 사업기반 강화

900억 유증, 한솔홀딩스 617억 참여
1772억 들여 지분 83.37% 확보
프로브카드 앞세워 반도체 사업 확대
테스트 공정 공략, 수익구조 고도화
3년째 영업익 감소, 수익성 회복 승부



유경준 한솔테크닉스 대표.

실적부진으로 돌과구가 절실했던 한솔그룹 계열 한솔테크닉스가 월테크놀러지를 인수하고 시너지 모색에 적극 나선다. 비메모리 특화 프로브카드(Probe Card) 제조 전문인 월테크놀러지는 관련 분야 1위를 차지하며 삼성전자의 핵심 공급사이자 유일한 프로브카드 전략 육성 업체로 자리잡고 있다.

13일 한솔그룹에 따르면 한솔테크닉스는 지난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방식으로 450억원,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방식으로 450억원 등 총 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그룹 지주사인 한솔홀딩스도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617억원 규모의 신주를 사들일 예정이다. 한솔홀딩스는 한솔테크닉스 지분 20.47%를 보유한 대주주다.

유상증자 자금은 전액 월테크놀러지

인수에 활용한다. 인수금액은 총 1772억원이다. 이를 통해 이윤정 월테크놀러지 대표를 포함해 김명환 및 특수관계인, 알머스투자조합 등이 보유한 지분 총 83.37%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된다.

한솔 관계자는 “프로브카드는 반도체 시장 전반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다”면서 “한솔테크닉스는 월테크놀러지 인수를 통해 반도체 사업 영역에서의 확고한 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 성장 비전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솔그룹은 앞서 그룹의 핵심 신성장 동력 사업 중 하나로 반도체를 선정한 바 있다. 한솔테크닉스를 통해 월테크놀러지를 품에 안으면서 프로브카드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부문 시장 진출과 수익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01년 설립한 월테크놀러지는 지난해 674억원의 매출과 9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는 전년도 매출(667억원), 영업이익(9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당시엔 750억원의 매출과 7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바 있다.

시장조사전문기관인 Yole에 따르면

글로벌 프로브카드 시장은 2024년 24억 4000만 달러에서 오는 2028년에는 31억 1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서버, 자율주행, 고속통신, 의료, 한공,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까지 활용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프로브카드 시장규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요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는 웨이퍼 제조 공정→산화 공정→포도 공정→식각 공정→박막 공정→배선 공정→테스트 공정→패키징 공정의 8대 공정을 거쳐 만

들어진다.

이 가운데 프로브카드는 7번째인 테스트 공정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으로, 테스트 장비와 웨이퍼를 전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프로브카드는 미세 프로브 핀의 설계와 제조 품질이 성능을 좌우한다.

현재 한솔테크닉스는 전기·전자부품, 자동차 전장,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에너지 솔루션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조2524억원으로 전년(1조1995억원)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4억원으로 2024년(334억원)보다 하락했다. 영업이익은 2022년 당시 599억원을 기록한 이후 3년째 내리막이다. 한솔테크닉스는 이번 월테크놀러지 인수에 앞서선 반도체 장비소재의 정밀 가공, 세정, 코팅 사업 등을 영위하는 아이윈스(2022년), 반도체 소재 재생 사업을 영위 중인 에스아이머트리얼즈(2025년)를 각각 인수하며 반도체 장비 가공·소재 재생 사업에 뛰어들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성숙 장관, K-뷰티 업계 만나 “추경 신속 집행”

(중소벤처기업부)

충주 아우딘퓨처스서 K-뷰티 간담회
수출바우처 1000억, 긴급자금 2500억
중동 전쟁 여파에 원부자재 공급 차질



13일 충북 충주시 아우딘퓨처스에서 열린 '중동 전쟁 관련 K-뷰티 기업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이 박수를 치고 있다. /중기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K-뷰티 관련 기업들을 만나 “수출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등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중소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3일 오후 충북 충주에 있는 화장품제조·판매기업 아우딘퓨처스를 방문해 관련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 해소를 위해 나프타 위기 품목 지정, 상승한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의 납품대금 반영 여부 모니터링, 정책자금 만기 및 법인세 납기 연장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부담 경감, 수출 다변화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자리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형 약재 이후 K-뷰티 기업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듣기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부분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료, 포장재 등 원부자재 공급 차질과 단가 인상을 가장 큰 애로로 호소했다. 원료나 용기 제조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화장품 ODM 기업들도 용기 등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 고객사 납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물류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물류 비용 폭등과 함께 운송 지연으로 인해 원부자재 수입은 물론 화장품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우리 화장품 업계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내·외 인허가 정보와 글로벌 원료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별 규제 관련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K-뷰티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규모는 2022년 44억7000만 달러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3억2000만 달러, 6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83억2000만 달러로 늘면서 이 기간 평균 23%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중기부, 식약처,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이 업무 협약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이들 기관은 수출기업 대상 금융지원 및 투자 확대,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삼표그룹

0도에도 강도 확보

특수 콘크리트 개발

현대건설과 간절기 기술 구현

삼표그룹이 현대건설과 0°C에도 굳는 간절기용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13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삼표산업이 현대건설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간절기 특수 콘크리트는 ‘기온 보정값’ 적용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낮은 기온 환경에서 강도 확보를 위해 시멘트 사용량을 늘려 콘크리트 규격을 높이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지만 이는 공사비 증가와 함께 일교차가 큰 간절기에는 내구성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삼표그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표시멘트의 조강형 슬래그시멘트를 적용한 간절기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해당 기술을 통해 외기 온도가 0도(°C)에 가까운 환경에서도 48시간 이내 5MPa(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뷰티레스트 블랙, 더마테스트 ‘엑셀런트’ 획득

독 피부과학 시험기관 더마테스트 인증
아토피 피부군 테스트서 저자극 입증

시몬스의 최상위 라인 ‘뷰티레스트 블랙’이 독일의 권위있는 연구기관 더마테스트의 피부과학 시험 인증에서 ‘엑셀런트(Excellent)’ 등급을 획득했다.

13일 시몬스에 따르면 더마테스트는 1978년 독일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권위의 피부과학 시험 연구기관으로, 피부과 전문의·생물학자·식품화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피부에 접촉하는 제품

을 대상으로 피부 자극 여부와 안전성을 엄격히 검증하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서만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이번 시험에서 뷰티레스트 블랙은 민감성 피부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는 ‘아토피 피부군’을 대상으로 한 패치 테스트에서 저자극 제품임을 인정받으면서 피부가 예민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해당 테스트는 일반적인 피부 관련 인증과는 달리 직접 피부 접촉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특

징이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모델은 ▲ 켈리 ▲ 데보라 ▲ 마리옹 ▲ 루실 ▲ 브리짓 ▲ 로렌 ▲ 애거 등 뷰티레스트 블랙 전 제품이다.

뷰티레스트 블랙은 시몬스 침대의 전 역량을 집대성한 제품으로, 국내 초고가 침대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시몬스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구현하는 포켓스프링 중에서도 3중 나선 구조의 ‘어드밴스드-포켓스프링’을 사용해 섬세하면서도 세련된 지지력을 구현하며, 수면 도중 작은 뒤척임에도 기민하게 반

응하고 신체를 세밀하게 지지한다.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 출시 이후 매년 두 자릿수씩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2018년 출시 2년 만에 매출 30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3년에는 월 300개, 올해 3월에는 처음으로 월 판매량 500개를 돌파했다.

시몬스 관계자는 “더마테스트 인증 획득을 통해 초프리미엄 매트리스로서 차별화된 안전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면서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면 환경을 만들고, 프리미엄 침대의 기준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삼표그룹은 현대건설과 0°C에서도 굳는 간절기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